

주정차 흠짝제 '미준수'...야간 교통사고 등 우려

광주 남구 양림·서구 풍암동 등 주정차량 중앙선 침범 일췌 단속 유예시간 도로 양쪽에 차량 줄지어...대책 마련 필요

광주 자치구가 불법주정차와 교통체증 개선을 위해 '흠짝(7번) 주차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구역에서는 단속 유예 시간 등에 무분별한 주정차가 이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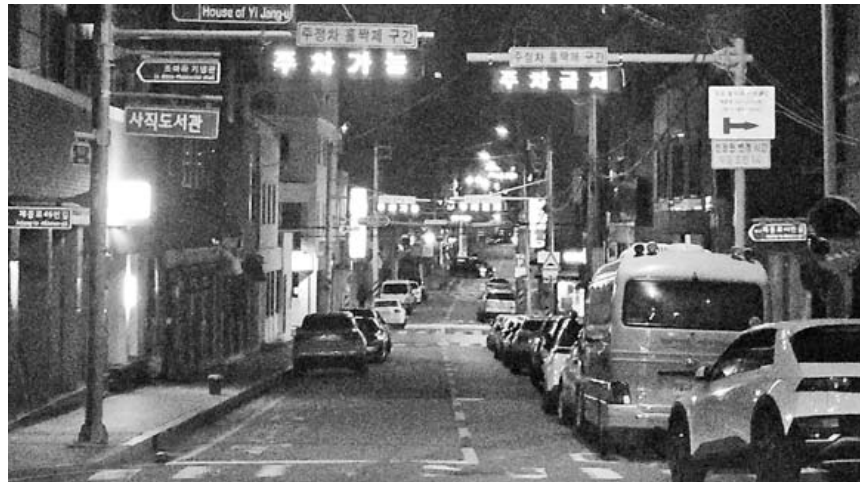
지난 16일 오후 8시 광주 남구 양림동 제2로 왕복 2차선 도로. 해당 도로는 주정차 흠짝제가 도입된 곳이지만 도로 양쪽에 차량들이 줄지어 주정차 돼 있어 이곳을 지나는 차량 대부분은 중앙선을 넘어 이동하고 있었다.

같은 날 서구 풍암동 광주은행 풍암지점 인근 도로도 상황은 비슷했다. 도

로 양쪽에 차량이 불법 주정차 돼 있어 통행이 어려웠고 일부 구간에서는 양방향 차량이 맞물려 길이 막히는 등 일대 혼잡이 빚어졌다.

인근 매장에서 근무하는 김모(30대·여)씨는 "낮에는 주정차 흠짝제가 비교적 잘 지켜지지만, 밤이 되면 도로 양쪽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딱 차 교통 혼잡이 심하다"며 "택시들이 서로 비켜주지 않으려고 경적을 울려 시끄럽기도 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광주 서·남구는 관내 왕복 2차로의 좁은 도로에서 양쪽 주정차로 인한 교통



주정차 흠짝제가 운영되고 있는 광주 남구 양림동 제2로 왕복 2차선 도로. 단속 유예 시간 등에 무분별한 주정차가 이뤄져 차량들이 중앙선을 넘어 이동하는 등 교통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성학 기자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9년과 2020년부터 각각 주정차 흠짝제를 운영하고 있다. 서구는 풍암동, 동천동 등 6개

동 22개 구역에서, 남구는 양림동과 백운동 등 4개 구역에서 시행 중이다. 서구는 매월 흠짝 구간을 변경하고

있다. 구간별 최소 60분에서 최대 24시간 주차를 허용한다. 유예시간을 초과하면 단속이 시작되는데, 주차 금지 구간에서는 5분 초과 시 단속 대상이 된다.

남구는 하루 간격으로 주차 허용 차선을 변경하고 있다. 주차 가능 구간에서는 24시간 주차를 허용하고 있으며, 주차 금지 구간에서 15분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적발 시 단속한다.

최근 4년간 주정차 흠짝제 구간을 포함한 인근 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를 보면 서구는 2021년 6천338건, 2022년 9천478건, 2023년 1만733건, 2024년 1-10월 6천11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남구는 같은 기간 2천788건, 2천227건, 1천871건, 790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문제는 야간 단속의 한계다. 고정형 CCTV의 경우 서구는 오전 7시-오후 8시,

남구는 오전 7시-오후 7시 단속하고 이 외 시간에는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일부 차량은 번호판을 가려 단속 CCTV를 피하고 있다. 이동식 CCTV는 민원이 많은 구간을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전체 구간을 포괄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풍암동 주민 이모(50대)씨는 "이곳은 음식점과 술집이 많아 도로에 항상 차량이 가득하다"며 "술 취한 사람들이 갑자기 차도를 뛰어드는 상황도 있어 사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자치구 관계자는 "일부 운전자가 단속 유예 시간을 악용하거나 번호판을 가리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며 "주정차 흠짝제 구간만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기술이 현재는 없어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주성학 기자



분비는 '광주교육 협치한마당' 광주 교육의 새로운 협치를 도모하는 '2024 광주교육 협치한마당'이 지난 16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려 행사장이 관람객들로 붐비고 있다. '광주교육! The 새로운 협치를 그리다'란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지난 3월에 개원한 협치진흥원의 성과를 공유하고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김애리 기자

무면허 대포차 운전 불법체류자 3명 검거

광주 북부경찰...도주 5개월만

무면허 상태로 대포차를 몰다 경찰의 정지명령에 불응하고 5개월 넘게 도망다닌 불법체류자들이 검거됐다.

17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캄보디아 국적 외국인 A(33)씨 등 3명을 최근 체포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0일 오전 10시 10분께 북구 임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대포차를 운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이

들은 교통 단속 중인 경찰의 정지명령에도 멈추지 않고 2km를 도주한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 조사 결과 이들이 달린 차량은 도난 신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5개월간 수사를 벌여 지난 14일 오후 6시 50분께 경기도 광주 한 빌라에서 A씨 등을 체포했다. A씨 일당 중 B(22)씨는 음주운전 수배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당시 A씨 일당이 있던 방에는 또 다른 캄보디아 출신 불법체류자 3명도 함께였다. /안재영 기자

교사가 학생에 SNS로 부적절한 발언

광주지역 고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에게 부적절한 연락을 한 사실이 알려져 교육 당국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7일 광주시교육청과 경찰에 따르면 광주 한 공립고등학교 교사 A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여학생에게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교육청은 A씨를 대상으로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경찰도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다기 기자

'중앙공원 1지구' 주주권 항소심 내년 마무리

우빈산업·빛고을SPC·롯데건설·케이앤지스틸...내년 1월9일 선고 "고의 부도 인정하나 근절권 행사 문제제다" vs "배임 행위" 팽팽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SPC)의 주식 24%에 대한 주인을 가리는 항소심 재판이 다음 해 1월9일 마무리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 2부(김성주·최창훈·김진환 고법판사)는 '주주권 확인 등' 소송의 1심에서 패소한 피고 우빈산업, 빛고을SPC 등과 원고 케이앤지스틸 간의 항소심 변론을 종결했다. 항소심 접수 1년이 만이다.

1심에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이 풀옵션을 행사하며 가져간 빛고을SPC 주식 24%의 주주임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판결 이후 우빈산업이 케이앤지스틸에 줘야 할 주식은 롯데건설로 넘어갔다.

당시 빛고을SPC의 대표이사는 우빈산업의 대표이사가 맡고 있었는데, 100억원대 채무를 갚지 않아 롯데건설이 이를 대신 변제하고 근절권을 행사해 그 대가로 우빈산업의 주식을 가져갔던 것.

이에 1심과 달리 이번 재판에는 롯데건설도 피고로서 참여했다.

최후 변론에서 원고 측은 "빛고을SPC가 고의로 채무를 갚지 않아 케이앤지스틸에 줘야 할 우빈산업의 주식이 롯데건설로 이동했다"며 "이러한 행위

는 '배임'이기에 근절권 행사도 무효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피고들은 당시 빛고을SPC 상황이 불안정했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고의 부도) 것은 맞지만, 롯데건설의 근절권 행사에는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특히 원고 측은 추가 자료 요청 등에 대해 "주주권 확인 소송이 아닌, 행사 고발을 위한 자료 수집"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모두 추가자료 제출 임박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되 선고는 다음 해 1월9일에 하기로 했다.

한편 우빈산업과의 손해배상 소송에 선이겼으나, 광주시외의 '시공사 지위 확인'에선 패한 항소의 소송 2건은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안재영 기자

'국감 기간 중 골프' 민형배 의원 고발당해

국정감사 기간 중 골프를 쳐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 국회의원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17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 의원을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최근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민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 기간 골프를 쳤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토대로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파악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민 의원의 행적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조사하도록 조치했다.

당시 민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심려를 끼쳤다"며 비유를 직접 계산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민 의원이 골프장에서 지출한 비용 내역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주성학 기자

누구나 쉽게 바르는 황토 벽지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살아 숨쉬는 고어텍스 특허공법 천연황토 코팅제!!

- ▶ 용도
어린이집·유치원·한옥 내·외부·방바닥·전원주택·경로당·아파트·펜션·찜질방·카페·휴집
외벽·독채·양어장·물탱크·기타 인테리어를 요하는 곳
비가 오면 축축하거나 물이새어 곰팡이 생기는 모든 곳
기존 황토미장된 곳이나 도배지를 뜯지않고 위에 시공을 요하는 모든 곳
비염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방이나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 ▶ 친환경성
천연황토, 게르마늄, 솔잎, 편백나무, 약쑥, 참숯, 은행잎등 건강에 좋은 재료를 염색하여 고분말로 만들어 술향기나는 친환경 웰빙 제품입니다.
- ▶ 색도조절제 화이트(600g) : 원하는 색상 조절가능

저가 황토 제품과 비교 절대 불가!!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

시공에 검증 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 업체입니다.

전화 문의시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구입시 시외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드림코리아
DREAM 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korea.biz